

묵상의 시간

Q U I E T T I M E

| 윤종하 지음 |



성서유니온교회

목상의 시간

저자 : 윤중하

판권 : ©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1983

펴낸곳 :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3판 3쇄 : 2012년 12월 28일

등록 : 제14-6호(1978.10.21)

주소 : 138-852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4

전화 : 02-2202-0091

팩스 : 02-2202-0095

<http://www.su.or.kr>

e-mail: sukorea@su.or.kr

ISBN 978-89-325-0103-1 (03230)

성서유니온선교회(Scripture Union)는 1867년 영국에서 어린이 전도와 성경읽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120여 국에서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는 1972년에 설립되어 한국 교회에 성경 목상(QT)을 소개하였고, 현재는 전국 13개 지부에서 매일 성경읽기, 어린이·청소년 전도, 캠프, 개인성경공부(PBS), 그룹성경공부(GBS), 지도자 훈련, 기독교 서적 출판 등의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선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린이와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에 전하는 한편, 모든 연령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권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추천의 말 004

1.하나님과의 교제 007

2.대화-교제의 길 011

3.성경읽기-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015

4.묵상-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021

5.적용-나 자신을 돌아보고 031

6.기도-하나님께 응답하고 045

7.실천-하나님과 동행하자 057

8.지도자의 도움 067

9.교역자들에게 참고될 말 075

10.실습 087

추천의 말

출생은 생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생(또는 중생)도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라 갈 수 있을까요? 이 소책자-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묵상의 시간-가 이를 도와줄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분의 인도와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생애나 다른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2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같이 신령한 젖(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을 먹고 자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자라게 하려면 젖을 먹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도록 영적 양식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 소책자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따라 훈련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잘 배우셔서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자를 따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빕니다(벧후3:18).

1982. 12. 6.

백준섭(Terry Pye) 목사
해외선교회(O.M.F.) 선교사

1.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성장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며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이 생소한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천당’이나 구원, 영생과 같은 말이 더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며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 다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이며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이단시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경부터는 거의 자연스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당연한 질문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자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서 대하는 것이 보편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중생(重生)한-사람은 이제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는 점점 자라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이런 말씀이나 히브리서 6:4-8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내 구원에 회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다시 회의와 고민에 빠지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중생한) 사람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잘못 설명되어서 강박관념 때문에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 것을 보편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눅15:11-24). 이것을 관계의 회복 또는 확립(establishment)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나 관계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의 신분보다 훨씬 고귀한 신분이에요,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가면서 더욱 친근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워서 거룩한 자녀로 자라 가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development)이라고 하며 조직신학에서는 성화(聖化)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 또는 성취(fulfilment)라고 부르며 조직신학에서는 영화(榮化)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성장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며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가 잘 지속되지 않고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꾸준히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양식으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7).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성경을 양식으로 섭취하는 길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 (Quiet Time)입니다. [참고서적,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 (성서유니온) - 1장 서론:그리스도인의 생활]

2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내가 이야기하는 일(기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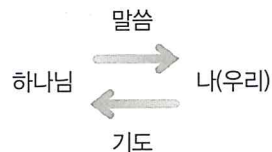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라고 하면 예배라든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 대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연인끼리 교제할 때나 사업관계로 서로 교제할 때도 늘 대화가 우선적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내가 이야기하는 일(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잘 배우지도 못했고 잘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습관이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능력이 별로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역시 무당종교(샤머니즘)나 불교의 강한 영향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제(司祭)나 무당을 통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 되어 왔고, 기껏해야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주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들어온 천주교의 영향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예언기도나 인수기도라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자신을 설명하시는 분(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

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인물들을 중간에 세우셔서 말씀하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10:19-20). 그 뿐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책을 기록해 주셨고,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고 하셨음을 봅니다(시1:2).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대답 없는 독백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실은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도식을 보십시오.



전도서 5:1-2을 살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요즈음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려고 만날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

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니 무엇이 선(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악
인지를 잘 모르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를 어
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서는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성경 말씀에서 듣고 배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부로 입을 열어 기도하
거나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하지 말고 말(기도)을 적게 하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시간에 기도부터 길게 하지 말고
성경부터 읽고 묵상한 후에 배운 바에 따라서 겸손히 응답의 기도
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의 시간’ (Quiet Time)이라
고 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올바르게 가지려면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은 후에 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
지 않으면 올바른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
게 말씀하시는 시간(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길수록 좋습
니다.

3. 성경읽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 듣도록 합시다.
- 너무 많은 분량을 읽지 맙시다.
- 가급적 규칙적으로 읽읍시다.
- 미리 짜여진 읽기표를 사용합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성경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성경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와 긴장된 자세로 엄숙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주의합니다.

☞ 듣도록 합시다.

‘묵상의 시간’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구는 입을 다물고 계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알아보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피동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시119:68).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시119:102).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119:130).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시119:135).

듣기 위해서는 사전이나 참고서나 주석을 찾기보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낱말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을 것이고 배경 같은 것도 궁금하겠지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참고서를 뒤적이다 보면 하나님은 떠나보내고 나 혼자 학문에 골몰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닫는 만큼이라도 주의해서 듣고 자신을 반성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시간'의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그 많고 훌륭한 성경연구가 무가치한 휴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마저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너무 많은 분량을 읽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명령하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고,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 7:24).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날 듣고 소화해서 실천에 옮길 만큼 읽는 것이(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15절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많은 학자나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공부 방법 중에는 성경의 줄거리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독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에는 많은 분량을 읽고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듣는 ‘묵상의 시간’에는 알맞게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을 여러 장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공리(功利)사상, 즉 공적을 쌓으려는 생각은 나쁜 사상이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읽은 분량이 아니라 듣는 자세가 중요함을 꼭 명심하도록 합시다.

☞ 가급적 규칙적으로 읽읍시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뵙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지시나 부탁이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침에 규칙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새벽기도회에 나가시는 분은 그 시간을 묵상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의무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틀에 박힌 듯이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닙니다. 몹시 피곤한 날에 피곤한 채로 반쯤 졸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자고 좀 늦게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이른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해 놓고 나서 10시경이나 낮 또는 저녁 시간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묵상의 시간’을 훈련받을 때라든지, 무질서하면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없는 성격의 사람이라든지, 아침 시간을 놓치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든지 하면 규칙적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기보다 인자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해 버린다면 큰일입니다.

미리 짜여진 읽기표를 사용합시다.

어떤 학자는 내가 임의로 골라서 성경을 읽기보다 남이 짜 둔 읽기표에 따라 읽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성서유니온에서도 읽기표를 매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그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성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날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어 큰 도움을 받는다고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미리 짜여진 표를 따라 읽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골고루 보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어떤 부분(때로는 한두 구절)만 읽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

님이 바라시는 자녀로 자라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짜임새 있게 읽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운(편중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의 교훈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을 자주 인용하신 점을 유의합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읽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너무 오랫동안 제사법이나 성소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지루함이 있습니다. 역대상·하에서는 열왕기상·하에서 읽은 것을 두 번 되풀이해서 읽게 되어 역시 따분해지기 쉽습니다. 예언서만을 1년 내지 2년을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도 예수님의 생애만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 읽는 것이 훨씬 맛이 있고 유익합니다.

성서유니온에서 만든 읽기표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읽게 하며 지루하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 표를 따라 읽다 보면 신구약 전체를 빠짐없이 보도록 짜여 있습니다.

4.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 전체의 뜻을 파악합니다.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합니다.
- 내게 주시는 교훈을 잘 듣도록 합니다.
- 메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귀에 쉽게 들리지만 어떤 말씀은 들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령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김질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면 잘못 이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묵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에서는 평신도들을 위하여 보다 쉽고 단순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1쪽 참조).

☉ 전체의 뜻을 파악합니다.

그날 주신 말씀(읽은 말씀)의 전체 윤곽과 주제와 대의(大意)를 파악하는 것이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예) 마태복음 4:1-11

이 내용은 예수님의 금식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그때는 구약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아서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여 줍니다.

예) 고린도전서 3:10-15

이 본문은 1-9절, 18-23절과 연결지어 보면, 교회 안에 있던 인간 중심의 분쟁과 파벌의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중심적인 활동이나 열심이나 지혜는 불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윤곽이나 주제나 대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나 독서를 잘 하지 않는 분에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합시다.

아마 이 부분이 '묵상의 시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시는 교훈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이라고 본다면(앞에서 생각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도록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3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6:7-8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도를 길게 많이 해야만 들어 주신다는 오해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며, 32-33절에서도 되풀이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하거나 목주나 염주를 굴리면서 기도의 횟수를 헤아리는 이방인들의 잘못을 우리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종교의 영향 아래서 살아 온 우리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살고 있는 서구인들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떤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듣고 알게 되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도 잘 듣고 배워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바르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지시나 인도를 잘 따르려면 반드시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 내게 주시는 교훈을 잘 듣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모습이나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나에게 명령이나 부탁도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주시기도 하시고, 경고나 책망도 하시며, 본받을 것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잘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항목별로 찾아보고 노트에 적으면서 하

나하나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날 특별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꼭 항목별로 다 찾아보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이나 능력에 따라서 한두 가지 교훈만 듣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 훈련받을 때는 (약 1년간) 항목별로 다 살피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18:15-20

15절. 할 일 : 가서 →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피할 일 :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 뒷공론만 한다든지 헐뜯지 말고 먼저 조용히 찾아가되 단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할 일 : 권고하라 → 상대방의 자유나 자존심만 생각해 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상담을 청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거나 상담할 때 약점을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16절. 할 일 : 교회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사람 몇이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17절. 할 일 : 최후의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18절. 책임과 할 일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19절. 약속 :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고쳐 주려고 하고 또 용서를 비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22-23 참고.

20절. 약속 :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요14:13)이란 말과 비슷한 뜻인 것 같습니다. 한 주님 안에서 합심하는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런 모임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본받을 점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도 있고, 책망이나 경고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크게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간단하게 합심기도하라는 교훈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추상적인

생각에서 머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이나 신령한 생활은 분위기만 잡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초연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기도생활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나 신령한 생활은 부엌이나 안방이나 가게나 사무실이나 발이나 바다 위에서나 차 속에서나 학교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약1:27).

잘못을 도매금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잘못된 많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별 뜻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때로는 더욱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의 잘못이 지적되면 기분이 나쁘고 변명하게 되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떠들며 흥분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교훈을 귀담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의 구석구석에 끼인 먼지를 일일이 다 청소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고 설교만 듣거나 강의만 듣거나 하면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열심도 없고 새벽기도회는 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침실에서 ‘묵상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도자들이 많고, 생활이 경건하고 선교사업

이나 구제사업도 잘하고, 거짓된 사교 집단이나 운동이 크게 번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잡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한 가지씩 배우고 고치고 행하면서 자라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잊지 맙시다.

☞ 메모합시다.

‘묵상의 시간’은 듣는 시간이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앞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시간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단순히 듣고 깨달은 말씀은 노트에 적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 듣고 깨닫는 것을 적어 봄으로써 그것이 구체화되고 정리가 되며 마음 속에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11).

「매일성경」에는 메모할 수 있는 묵상일기 한 페이지가 매일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일기 쓰는 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훈련받을 때는 견본 1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견본 2처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견본 1〉

본문의 중심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용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적용

기도

〈견본 2〉

본문의 중심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교훈 적용과 자기반성

기도

5 적용

나 자신을 돌아보고

- 시간적으로 현재 필요한 말씀입니다.
- 다시 듣고 적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합니다.
- 너무 비약적으로 적용하지 맙시다.
- 자기 합리화의 과오에 빠지지 맙시다.
- 다른 사람과 함께 적용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묵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깨달음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즉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성경공부로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모셔 두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적용

아직 미혼인 사람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독신으로 지내라고 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문제를 놓고 상담을 해 보면 독신으로 지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을 거의 만나볼 수 없습니다. 또 결혼 상대자를 구하고 있는 미혼자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21-22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23절)는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서 24절에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이지 그 신앙을 오늘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5-2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도전하셨

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내가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였지만 역시 그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신앙고백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여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명령하시자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 겸 도전을 하시자 비로소 실제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내 현실에서는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는 성경공부는 무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용’(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적용에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시간적으로 현재 필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양식을 저장해 두기만 하고 오늘 굶는 사람과 같이 되면 비참해 집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바르게 살아야만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시는 말씀(읽고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1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읽고서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지!”라고만 깨닫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교실에서 윤리 도덕을 강의하시는 분이시기보다 집에서 매일 자녀에게 어떤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근심에 잠겨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잃게 될 제자들이 근심에 싸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때 꼭 하실 필요가 있어서 하신 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나에게 하셨다면 오늘 아침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며칠 전이나 한 주 전에 있었던 걱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현재 당면한 걱정을 다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 닥칠 걱정을 내다보시고 미리 주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 살 된 아이가 아침에 아버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그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1년 후나 중학교에 가서 실천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다르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너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친구도 좀 사귀도록 해라”라고 하실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셨을 때 지금 당장 선교사로 부르신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모임에서 선교사를 보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보고 그 다음 인도를 꾸준히 받아 가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도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꾸려 가야 할 말씀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다시 듣고 적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용을 못 하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못하고 지나칠 때가 더 많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회사 사장이나 간부는 한 번 지시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호통을 치기도 하겠지만 인자한 부모는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자상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되풀이해서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교훈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성서유니온 국제 총무였던 나이젤 실베스터(Nigel Sylvester) 의 간증은 감명 깊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묵상의 시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오늘 아침

에 하실까?” 생각해 보았더니 며칠 전에 흑인 아이 하나를 입양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이를 제가 입양하라는 말씀입니까?”라고 여쭙어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영국인으로서 이미 내 딸(백인)이 하나 있고 방글라데시 아이 하나를 몇 년 전에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흑인 아이를 또 입양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그 날의 ‘묵상의 시간’을 끝냈습니다. 다음 날 ‘묵상의 시간’에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생각하던 중 어제 생각하던 입양 문제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제 말씀을 다시 펴서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흑인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필자가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의 간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잘 적응하고 있었기에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 했거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얼마 후에 다시 들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 보십시오.